

연변, 고목명목 보호로 ‘록색 기억’ 지켜간다

최근년간 연변주는 고목명목 보호 관리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전면적인 보호와 문화 전승에 주력해 고목명목 보호 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록색 기억’을 지켜가고 있다.

G331 길림 구간의 통정시 삼합진 변경선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11 그루의 황양나무가 우뚝 서있다. 줄기가 우거지고 잎이 무성한 이 고목들을 중심으로 조성된 삼합통상구 고목역참(古树驿站)은 현재 전국 8개 성에서 온 11명의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이 경영하고 있다.

고목역참은 삼합진의 새로운 문화 관광 방문지로 떠오르고 있다. ‘고목+생태+문화관광’의 모식을 통해 대중의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문화관광 발전 체계에 융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태보호와 문화전승, 경제효익 등을 실현함으로써 11 그루의 고목이 G331의 새로운 관광명함으로 떠오르게 했다.

길림장백산삼림공업그룹 화룡림업 유한회사 황구림장 관할구에 있는 길림증봉령(甌峰岭) 자연보호구역에는 수령이 2,800년 된 자삼왕(紫衫王)이 장백산맥과 조화를 이루며 우뚝 서있다. 보호구역에는 식물이 무성하게 자리있는바 전형적인 장백산지역의 특징을 띠고 있다. 해발고에 따라 침엽림과 침활엽혼합림, 활엽수림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단계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국가 1급 중점 보호 야생식물인 동북홍두삼(红豆杉)이 많이 자라는 중요한 지역이다.

2012년 북화대학 수령감정전문가팀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황구림장에서 수령이 가장 큰 이 자삼고목은 흉경이 1.85미터이고 높이는 20미터에 이르며 수령은 약 2,800년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자삼왕’이라 할 수 있다. 자삼은 동북홍두삼이라고도 불리는데 홍두삼과에 속하며 국가 1급 보호종이다. 이는 진귀한 약용식물일 뿐만 아니라 원림과 정원의 록화, 미화에도 탁월한 가치가 있어 현재 가장 진귀하고 희귀한 고급 록화 수종이다.



한편 훈춘시 신안가두 영춘사회구역의 대과유(大果榆)는 수령이 367년이고 흉경이 147센치미터이다. 대과유는 이미 2018년에 전국 록화위원회판공실과 중국림학회에 의해 ‘가장 아름다운 대과유’로 인정받았다. 훈춘시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유유원’을 투자 건설했으며 대과유를 중점 보호 수종으로 지정하고 나무 주변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울타리를 세워 대과

유에 좋은 성장환경을 조성했다. 현재 영춘사회구역 주민들의 나무 보호 의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바 모두 가 자발적으로 ‘나무보호원’이 되어 나무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고발한다.

올해 들어 연변주는 고목명목에 전역을 포괄하는 ‘1수1당’(一树一档) 관리 모식을 실시했다. 통일로 고목명목에 번호를 부여하고 전부 보호 표지를 부착하는 한편 현지 조사와 데이터 입력을 결합한 방식을 통해 고목명목의 수량과 분포, 성장 상태를 동적으로 감측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목명목 스마트 관리 체계의 년간 수치 승격 사업을 고품질로 완료함으로써 수치의 실시간 및 정확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연변주에는 소나무, 백송, 느릅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등을 대표로 하는 고목 4,385 그루(길림장백산삼림공업그룹 경영 범위내 4,280 그루), 1 그루의 명목이 등재되어 광범위한 고목명목 자원의 지식 베이스를 형성했다.

연변주는 일상적인 보수와 회복 작업을 결합해 부동한 수령과 수종, 성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관리 방안을 제정했다. 루계로 전문자금 100만 원을 쟁취하여 17 그루의 고목명목의 회복 작업을 완수하고 토양개량, 병충해 예방퇴치, 구조물 지지 강화 등 전문 조치를 통해 고목의 성장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동시에 연변주는 고목명목 보호와 향촌진흥, 문화관광 융합의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고목공원을 건설하고 《장백화기-연변고(기)목집결》선전책자를 편성하고 〈유유한 고목은, 멀리 이어지는 고향정〉선전 영상을 제작하며 고목사진대회, 고목문화제 등 활동을 개최하여 대중의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 특색을 갖춘 생태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장춘시는 일상에 만가향의 나무를 새로 심거나 보강, 인민거리와 해방대로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고목을 집중 배치하여 ‘록색화랑’을 조성했다. 인민거리 부근에 거주하는 류씨 녀성은 “여름철에 이 거리를 걸으면 체감온도가 확연히 내려가 시원함을 느껴요. 가로수길을 따라 퇴근하는 것이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이예요.”라고 말한다.

장춘시는 록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목 보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춘시록화관리센터는 매일의 정상적인 유지보수외에도 가장제(街长制)를 실시하고 있는데 100여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23개 원예사팀을 구성, 주요 도로와 미니공원 등 도시 록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거리순찰보호대는 ‘금가위’ 작업으로 과학적인 가지치기와 병충해 예방퇴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물의 성장 상태에 주목하여 수관이 더욱 무성해지고 차양 효과가 크게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록색도로 건설은 가로수길 조성

장춘시 도시 록화피복률 43.71%

‘숲속 도시’에로의 변모 가속화



최근년간 장춘시는 도시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들여 도시 록화피복률이 뚜렷하게 제고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춘 시내 록지률은 40.71%, 록화피복률은 43.71%에 달하는바 5년전에 비해 각각 11.5% 포인트, 5.3% 포인트 증가되었다.

장춘시는 올해에만 3.29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거나 보강, 인민거리와 해방대로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고목을 집중 배치하여 ‘록색화랑’을 조성했다. 인민거리 부근에 거주하는 류씨 녀성은 “여름철에 이 거리를 걸으면 체감온도가 확연히 내려가 시원함을 느껴요. 가로수길을 따라 퇴근하는 것이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이예요.”라고 말한다.

장춘시는 록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목 보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춘시록화관리센터는 매일의 정상적인 유지보수외에도 가장제(街长制)를 실시하고 있는데 100여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23개 원예사팀을 구성, 주요 도로와 미니공원 등 도시 록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거리순찰보호대는 ‘금가위’ 작업으로 과학적인 가지치기와 병충해 예방퇴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물의 성장 상태에 주목하여 수관이 더욱 무성해지고 차양 효과가 크게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록색도로 건설은 가로수길 조성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현재 장춘시 록색도로의 총길이는 이미 800키로메터를 돌파했다. 록색도로는 도시의 공원과 광장, 자연경관을 련결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록색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며 도로 양옆의 푸른 나무가 주는 편안함을 즐기기도 한다. 이통하강변 주위에는 주말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위해 찾아온다. 이들은 나무들이 무성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도시 발전이 가져다준 록색 혜택을 실감한다.

장춘시는 대규모 록화사업외에도 세부사항에 중점을 두고 미니공원(口袋公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368개의 미니공원이 건설되었고 올해말까지 추가로 30개의 미니공원이 개방될 예정이다. 미니공원은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시 전역에 분포되어있다.

장춘시는 실제 행동으로 친환경 발전 리념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의 모든 거리에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건설이 계속해서 깊이있게 추진됨에 따라 장춘시의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더욱 완비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아름다움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록색도로 건설은 가로수길 조성

연변주생태환경국, 토지 사용 안전 최저선 엄격히 준수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은 토양오염 예방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오염지역의 환경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함으로써 중점 건설용지의 안전한 리용을 전력으로 보장했다.

‘1주2공’(一住两公) 용지 주시하여 안전성 제고

부문 련동을 강화하여 연변주자연자원국과 함께 전 주적으로 용도가 ‘1주2공’으로 변경된 토지구역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 상황을 확인

하며 토지사용권자에게 법에 따라 토양오염 상황 조사를 완수하도록 촉구했다. 전문가들을 조직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상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관련 토지 정보는 제때에 ‘전국 건설용지 토양환경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었다. 또한 정책 선전을 펼쳐 정부 사이트에 년도 심사명세를 공시함으로써 대중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우선 관리 대상 토지에 대한 책임 강화

주체책임을 다지고 기업이 제 3자

기구에 위탁해 해당 토지에 대한 중점 감측을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오염을 관리통제하고 표지판과 방호벽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검사도 진행했다. 토지사용관리를 엄격히 했는바 오염조사와 위험평가, 오염정화 등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절대로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중점기업 오염원 집중 감시

기업 명단을 동적으로 갱신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적시에 감독관

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감독관리 토지구역 토양오염 관리통제 사업 지침(시행)〉의 요구에 따라 토양오염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대장을 작성하며 정돈개진 방안을 제정하여 추적 감측했다. 정기적으로 기업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점검하고 관련 지표 상황을 제때에 파악해 감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확보했다.

앞으로 연변주생태환경국은 건설용지의 안전 리용 목표에 집중할 계획인바 부문 련동 감독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품질 조사심사 관문을 엄격히 하여 주거환경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게 된다.

연변주자연자원국과 함께 전 주적으로 용도가 ‘1주2공’으로 변경된 토지구역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 상황을 확인

길림성, 생태환경보호 문제 제보전화 공개

최근, 길림성생태환경청은 인민대중들 신변의 생태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대중들이 생태환경 정비에 널리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7월부터 2개월간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 감측신고 집중 접수 활동을 전개한다. 성내 여러 지역의 제보전화는 아래와 같다.

장춘시: 0431-85378606
길림시: 0432-62405206
연변주: 0433-2522369
사평시: 0434-3267828
통화시: 0435-3780256

백성시: 0436-3203807
료원시: 0437-12345
송원시: 0438-2102096
백산시: 0439-3242369
장백산개발구: 0433-5710652
대하신구: 0435-4220882
길림성생태환경청은 사회각계가 생태환경보호 문제에 관한 대중 감측신고 집중 접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접수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변주자연자원국과 함께 전 주적으로 용도가 ‘1주2공’으로 변경된 토지구역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 상황을 확인

图说核心价值观

富 民 文 明 和 自 公 法 爱 敬 诚 友
强 主 谐 由 等 正 治 国 业 信 善

诚信是福

山西运城 李惠芳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